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형준



6·2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던 한나라당이 7·28 재보궐선거에서 압승했다. 한나라당은 예상을 깨고 8곳 중 5곳에서 승리했다.

을과 총주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뤄졌지만 결과는 야당의 참패였다. 넷째, 재보궐 선거에서는 '정권심판론'이 '지역 일꾼론'을 압도한다는 법칙도 깨졌다.

위험하고 불안한 한나라당 승리

인전 계양을에서도 승리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텃밭으로 꼽히는 강원도에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광재 후보를 도지사로 당선시킨 데 이어, 3곳 중 2곳을 쟁기며 기반을 넓혔다.

아무튼, 이번 재보선 결과로 양의 남자는 화려하게 귀환했으며, 민주당의 '56일 천하'는 쓸쓸히 막을 내렸다. 이런 선거 결과를 놓고 '민심이 두 달 만에 바뀌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야권 후보 단일화만 이뤄지면 여당에서 누가 나와도 승리할 수 있다는 자

만이 치명적인 패인이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 대표조차 재보선 패배와 관련해 "지도부의 안이한 공천에 큰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재보선 결과는 한나라당의 '위험하고 불안한 승리'라 할 수 있다. 한나라당의 쇠신 의지가 쇠퇴하고, 친이계가 과편화되며, 친이-친박간의 '과국적 균형'이 가속화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속이 흐지부지되는 분위기다. 한나라당 쇠신의 시급성이라 할 수 있는 계과 해체가 용두사미로 끝날 전망이다.

정지권에서는 이명박 정권의 2인자인 이재오 의원의 복귀는 "모래알처럼 흘러져 있던 친이계를 마치 자석처럼 끌어당기며 결집시킬 개연성이 크다"고 전망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날 수 있다. 오히려 친이계는 '이상득-이재오-정두언'의 3각 체제로 재편되어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대립하고 경쟁할지도 모른다.

특히, 지난 한나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권력 농단 문제와 관련해 이재오 당선자가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여론 내 권력자형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다. 한편, 18대 총선 공천 파동의 중심에 있었던 이재오 의원의 귀환으로 친박계의 응집화는 필연적이다. 특히, 이재오계를 중심으로 '본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경우, 친박계는 이를 '박근혜 죽이기'로 간주하고 거세게 저항할 것이다.

한나라당의 승리가 불안한 이유는 한나라당이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임에도 불구하고 승리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승리 이후 야당의 오만함과 새로 선출될 야당 출신 광역단체장들, 진보 교육감들의 독선이라는 우연적 요소가 상승 작용해서 얻은 결과라는 뜻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재보선에 기대 밖의 성과를 거뒀다고 해서 현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끝난 것은 아니다. 지방선거와 재보선을 통해 확인된 것은 유권자들의 '열정과 환멸의 주기'가 빨라지고 있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만약 한나라당이 민심을 오만해 위험하고 불안정한 승리에 도취되어 쇠신과 변화를 멀리하고 또다시 오만과 독선으로 회귀한다면 어두운 미래를 맞이할 것이다.

<영명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여수박람회 흥행 청신호 이젠 내실 기해야

2012 여수세계박람회 관람객과 참가국이 예상보다 많을 것으로 분석돼 성공 개최에 청신호가 켜졌다. 박람회조직위원회는 "최근 내국인을 대상으로 관람객 수요 예측조사를 한 결과, 엑스포 기간에 950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밝혔다.

참가가 확정된 나라 수도 증가 추세에 있다. 미주지역의 경우 미국과 페루 등 12개국, 유럽은 독일, 스위스 등 12개국, 아시아에서는 중국, 일본 등 14개국,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에선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24개국이 각각 참가를 확정지었다.

이런 외형적 청신호는 여수박람회 성공 개최에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교통 대책과 숙박시설 확보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게 사실이다.

급증하는 중도 탈락 고교생 방치만 할 건가

광주·전남지역에서 학업 중도 탈락 고교생이 매년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갈수성이 가장 예민한 시기에서 방치할 경우 범죄 등에 쉽게 노출되거나 사회 낙오자가 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광주지역 고교생 중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지난 2006년 633명에서 2008년 888명으로 매년 20%가량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는 전년보다 무려 405명이 늘어난 1299명에 달한다. 전남지역 역시 지난 2006년 821명에서 2008년 898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지난해는 1451명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 같이 학업 중단 고교생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생활고와 가정 불화 등 가정 문제가 가장 큰 이유이고 학습 및 학교생활 부적응이 그 다음이다. 이는 학업 중단 사유가 학생 개인에게 보다는 우리 사회에 책

무엇보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 대책이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전주와 여수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고속도로 신설이 물 건너 간데다 박람회 기간 중 영남권 방문객들이 주로 이용하게 될 '월례~낙포' 구간 확충 사업은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

숙박시설 부족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여수시가 국토해양부에 신청한 총 13건의 대형 숙박시설사업 가운데 7건이 해결되고 6건이 미해결 상태다. 그러나 경기 침체를 감안하면 7건도 실제 투자로 이어질 지 의문이다.

여수박람회가 이처럼 내적으로 직선화가 커진 것은 중앙정부의 지원과 관심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불과 1년 9개월 남은 시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無等鼓

광주(光州)와 광저우(廣州)는 한자의 우리말 발음이 비슷한 것 외에도 닮은 점이 많다.

무엇보다 의향(義鄉)이다. 광주가 의병의 본거지이자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성지라면 광저우는 중국 근대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혁명의 도시'로 유명하다. 신해혁명(辛亥革命) 당시 광동정부가 세워졌으며 북벌운동의 거점이기도 한 곳이 광저우다.

두 도시는 첨단과학 산업도시이자 전시권벤선도시다. 광주가 일찍이 첨단과학산업 단지를 중심으로 광산업을 키워 한반도 서남부의 하이테크 산업과 컨벤션산업을 선도하고 있다면, 광저우는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선진시 등이 부상하면서 경제적 위상이 다소 약해지기도 했으나 서비스 산업과 물류산업, 전시산업 및 첨단 과학기술 산업 등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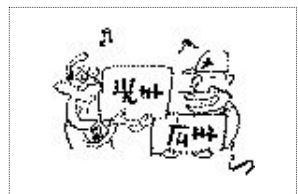
두 도시는 미향(味鄉)이기도 하다. 두 도시의 미향(味鄉)이기도 하다.

"음식은 광저우(食在廣州)"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광저우는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다. 생선, 계, 새우 등 풍부한 해산물을 주재료로 쓰는 광저우 음식(광동요리)은 중국 4대 요리 가운데서도 첫 번째다. 베이징과 상하이 급호텔은 주로 광동요리를 내놓고 고급 주방장도 대부분 광저우에서 배출된다고 한다.

이런 공통점은 두 도시가 지난 1996년 10월 차매결연을 하고 이후 10년 넘게 교류협력을 계속해 오고 있는 촉매제가 됐다. 두 도시는 이제 국제 스포츠 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다. 광주가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를 유치, 국제 스포츠계에 이름을 알리고 있는 가운데 광저우는 100일 앞둔 아세안 게임 성공 개최를 위해 바빠 뛰고 있다. 두 도시가 이번 이벤트를 계기로 서로 이렇고 밀어붙여 아시아의 대표도시로 동반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광주와 광저우



의료 칼럼

허정



출산을 저하는 이미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장 큰 사회적 문제다. 인구 옛날에는 너무 많아 강력한 가족계획사업을 시행했던 것을 생각할 때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낀다.

자고로 생명의 탄생은 자연의 섭리 중 최고의 걸작이며, 경이스러운 것이다. 의학이 발달되기 전, 의료가움이 보편화되기 전에는 모든 출산은 가정에서 나이 드시고 경험이 있는 할머니들의 주도로 이뤄졌다. 예전에는 10명 가운

자연분만이 가장 좋아요

데 1명꼴로 산모가 사망하거나 신생아가 사망하는 일이 흔했다.

제왕절개술은 일반인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수술시 자연분만보다 2배 정도의 출혈이 있으며 수술 후 복강내 염증, 장간막의 유착, 다량의 항생제 사용의 내성 문제, 다음 출산시 반복 제왕절개술을 해야 되고 신생아 출생시 기도 내 다량의 양수가 존재해 신생아 호흡이 문제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자연분만은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 있고 진통이 수반되지만 출산 후 회복이 빠르며 모유수유에 많은 도움이 되고, 출산비용도 저렴하며 부작용도 거의 없다. 또한, 엄마와 태어난 신생아와의 모아 애착이 강화된다.

필자는 30여년 동안 산부인과 의사로 지내면서 출산분만을 제왕절개에서 자연분만으로 바꾸는데 앞장서 노력해 왔다. 또한 본인의 의료기관에서도 자연분만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면서 산모에게 교육하고 용기를 심어주어 자연분만을 적극 권장 및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더욱더 자연분만이 선호되는 시대가 오기를 기원한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산모나 가족들도 중요하지만, 담당의사들도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을 줄이겠다는 회피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가급적 자연분만을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고

김형주



전통시대 우리나라 각 지역의 지리·환경적 특성에 따라 생산되는 농수산물 이 뚜렷하게 구분되었으며, 이의 유통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각 지역마다 특유의 향토음식이 있었다. 그러나 근래에 농수산물 생산기술의 발달과 체계적 유통망 구축으로 공급이 원활해지고, 다른 지역의 조리법이 전파되면서 각 지역 향토음식의 특색이 크게 약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색 있는 음식군을 육성하는 것은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와 병행하여 특화된 한 가지의 품목을 엄선하여 집중적으로 육성·발전시키는 전략이 긴요하다. 전주의 비빔밥, 안동의 햇제사밥, 울산의 고래요리, 평양의 냉면 등 우리나라의 유서 깊은 도시들에는 명품음식들이 여전히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지금 광주는 지역을 상징하는 특색 있는 한 가지의 음식은 뚜렷이 내세울

광주 대표음식 육성하자

그 지방에서만 생산되는 식료품을 그 지방 사람들이 전승하고 있는 조리법으로 요리하는 순수한 향토음식이 있고, 둘째 다른 지방에서 특산되는 식료품을 도입하여 특별한 조리법을 창안해서 만드는 향토음식이 있으며, 셋째 각 지방마다 있는 음식이지만 그 조리법에 특색이 있어 묘미를 자랑하는 향토음식이 있다.

예로부터 우리 전라도 지역은 풍부한 물산을 바탕으로 하여 뛰어난 미각문화를 꽃피워 왔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비옥한 평야지대의 풍부한 농산물과 청정해역의 다양한 수산물은 전라도 음식문화 발달의 토대를 이루었다. 특히 광주는 전주와 더불어 행정중심지로 남도음식문화의 거점도시였는데, 김치를 비롯하여 애저찌, 응봉탕, 흥어요리, 떡갈비, 한성식, 추어탕 등 다양하고 맛갈스런 음식들이 발달하여 왔다.

광주는 5미(五味)라 해서 광주김치, 무등산보리밥, 오리탕, 한성식, 송정떡갈비를 대표적인 음식으로 선정해 놓은 상태이다. 이렇게 지역적 역사적으로

"경품 받으려면 추가비용 내야" 업체 상술 속상

얼마 전 모 소령점에서 "바캉스철 휴가 기념 100% 당첨 경품행사 참여하세요"라는 개점 2주년 세일을 하고 있었다. 물건을 10만원어치 구입했다니 복권을 받았는데 운 좋게도 '비대 무료증정'에 당첨이 되었고 소령점에서는 상품 대신 교환권을 주었다.

상품 수령을 위해 다음날 업체에 전화를 했더니 배송료(5만원)를 내야 배달을 해주고, 설치를 원하면 설치료(4만5천원)를 따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미리 소령점 측과 그렇게 계약이 되어있다고 하면서 상

품만 지급할 수는 없다고 했다. 교환권을 자세히 살펴보니 작은 글씨로 "제품 교환용만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솔직히 이 돈이면 증자가 비대를 하나 살 수 있는 돈인데 하는 생각에 오히려 기분까지 상했다. 소비자 입장에서 경품을 받으려고 액수에 맞춰서 물건을 더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경품행사에 참여할 경우 후회했다. 그리고 괜히 내가 잘못 바라다가 이런 꼴을 당하는 건 아닐까 싶어 기분이 상했다.

▲이조아·광주시 광산구 송치동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6메일 opinion@kwangju.co.kr

광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 발행·편집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李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조사부 2200-621,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이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지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